

확인

‘-지요?’와 ‘-아/어요?’ 는 어떻게 다를까요?

‘-지요?’는 정보에 대하여 화자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 반면, ‘-아/어요?’는 정보에 대하여 화자는 모르고 상대방만 알고 있다.

문법	기능	화자	상대방	예문
‘-지요?’	확인	o	o	가: 오늘 날씨가 <u>덥지요?</u> 나: 네. 아주 더워요.
‘-아/어요?’	의문문	x	o	가: 오늘 날씨가 <u>더워요?</u> 나: 네. 아주 더워요.

<확인>의 ‘-지요?’와 <의견>의 ‘-지요?’ Karşılaştırma

<확인>의 ‘-지요?’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확인 질문을 할 때 사용하는 반면, <의견>의 ‘-지요?’ 는 화자가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하거나 재확인하여 대답할 때 사용한다.

문법	기능		화자	예문
'-지요?'	의견	대답	동의 구함 재확인함	가: 요즘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나: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 많지요.

확인의 '-(으)ㄴ 까요?'과 추측의 '-(으)ㄴ 까요?'는 어떻게 다를까요?

확인의 '-(으)ㄴ 까요?'는 1 인칭 주어가 상대방에게 질문할 때 사용하는 반면,

추측의 '-(으)ㄴ 까요?'는 3 인칭 주어의 행동을 추측할 때 사용한다.

문법	기능	주어	예문
'-(으)ㄴ 까요?'	확인	1 인칭	가: 제가 저녁에 <u>전화할까요?</u> 나: 네. 그렇게 하세요.

문법	기능	주어	예문
'-(으)ㄴ 까요?'	추측	3 인칭	가: 보람 씨가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까요? 나: 글썄요. 한 번 물어보세요.

확인의 ‘-(으)래요?’ 계획의 ‘-(으)래요?’ Karşılaştırma

확인의 ‘-(으)래요?’는 상대방에게 의향을 묻기 때문에 주어가 2 인칭인 반면, 계획의 ‘-(으)래요?’는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 때문에 주어가 1 인칭이다. 3 인칭 주어는 사용할 수 없다.

문법	기능	주어	예문
‘-(으)래요’	확인	2 인칭	가: 보람 씨 , 여깃에서 잠시만 기다릴래요? 제가 커피 한 잔 타 올게요. 나: 알겠습니다.

문법	기능	주어	예문
‘-(으)래요’	계획	1 인칭	가: 초콜릿 맛과 딸기 맛 중 어떤 걸로 하겠어요? 나: 저는 딸기 맛으로 할래요.

Kaynak: 김진호, 이태환, 김선희, 이수연.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. 박이정